

## 해외 한인의 지역별 특성

정성호\*

그동안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삶에 그 초점이 주어졌다. 이주 지역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오늘의 삶의 터전을 이룩하였으며,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해외 한인들의 삶과 의식을 서로 비교·분석하려는 시도는 자료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외 한인들의 삶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해외 한인의 특성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지역적 편차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결과는 해외 한인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 교포 정책 수립에는 전체적인 시각과 함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는 노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인의 해외이주 유형을 살펴보고 해외 한인의 생활 양식의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제점 등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주 유형은 최악의 삶을 벗어나고자 했던 농업이민, 망명이민, 노동이민의 성격이 강한 구이민과 1960년대 산업화시기에 미국과 남미를 중심으로 가족이민과 투자이민의 성격이 강했던 신이민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해외 한인들의 지역별 특성은 해외 지역 한인들의 생활 가치관, 생활상의 문제점, 현지 적응력 등을 중심으로 검토했다.

\*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 1. 머리말

96년 현재 해외 한인의 수는 53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남한 인구 4,500만의 11.8%, 남북한을 합친 인구 7,000만의 7.6%에 이르는 숫자이다. 이와 같은 높은 인구비율의 해외 진출은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랑했던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그 예를 찾기 힘든 것이며,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화교의 경우도 인구 비율로는 3% 미만밖에 안 된다. 오늘날 해외 한인은 세계 130여개국에 살고 있으며, 이중 중국(200만명), 미국(130만명), 일본(80만명), 중앙아시아(45만명) 등 4개 지역에 사는 교민의 수가 전체 교민의 85.8%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해외 한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이들이 한국인의 뿌리를 간직하고 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보다 실리적인 이유 즉, 한국의 국력 신장에 해외 한인의 역할이 긴요한데 해외한인의 지위 향상 없이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 한인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는 지대하며,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주화에 끼친 공헌도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비해 해외 한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전반적으로 미약하며, 이들에 관한 기초자료조차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해외 한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의 관심 제고와 함께 기초적인 통계 및 관련 자료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다행히 최근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외 한인들과의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해외 한인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주관하는 해외 한인 모국 방문 프로그램과 한민족체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해외 한인에 대한 관심은 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삶에 그 초점이 주어졌다. 이주 지역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의 삶의 터전을 마련했으며, 한인 사회가 겪고 있는 갖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해외 한인들의 삶과 의식을 서로 비교·분석하려는 시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96년 공보처가 실시한 <한민족 공동체 의식조사>가 유일한 것이며, 이것 역시 단편적이고 의례적인 설문을 담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해외 한인들의 삶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은 무엇보다도 해외 한인의 특성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지역적 편차를 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

며, 특히 해외 한인을 위한 정책 수립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성공적인 해외교포 정책 수립에는 해외 한인을 전체적인 시각과 함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는 노력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한인의 해외이주 유형을 살펴보고, 해외한인의 생활양식의 특성을 지역별로 비교·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구소련 지역의 한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문제점 등을 추출함으로써 향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문헌의 검토와 함께 1997년 6월부터 8월까지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에서 각각 300명의 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sup>1)</sup>.

## 2. 한인의 해외이주 유형

1860년은 우리의 해외이주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해부터 본격적인 해외이주의 기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의 해외이주사는 새로운 경작지를 찾아가는 농업이민, 외지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이민, 잃어버린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나아간 망명이민, 노동계약에 의하여 나아간 계약이민, 사업진작을 위하여 나아간 사업이민 혹은 투자이민 등 다양한 형태를 띠어 왔다.

해외이주의 유형은 시기에 따라서도 그 성격이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이웃나라들인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의 이주인 구이민은 자유를 찾아 신천지를 개척하기 위해 미지의 땅으로 가는 활력과 개척의 이민의 아닌 굶주림으로부터의 탈출과 강제노역이 주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1965년 이후에 간신이민은 남북미, 유럽의 여러 국가들 등 주로 백인문화권으로의 이주로 민족의 활력과 가능성을 자랑하고 있다.

1) 조사지역은 미국(LA, 샌프란시스코, 뉴욕), 일본(동경), 중국(심양, 연변, 북경), 중앙아시아(알마타, 타슈켄트) 등이 포함되었으며, 조사내용은 해외 한인의 기초 현황, 정치, 경제, 생활 및 교육에 관한 가치관, 언어와 전통 생활 양식에 대한 가치관, 한국인의 현지적응능력, 통일 및 북한 문제 등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역점을 두었다.

〈표1〉 구이민과 신이민의 비교

	구이민	신이민
이주 시기	1860년 ~ 1945년	1960년 이후
이주 지역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미국, 독일, 캐나다, 브라질
이주 유형	농업이민, 노동이민, 망명이민	가족이민, 투자인민

### 1) 구이민

구이민은 우리 나라가 어려웠던 시기의 해외 이주로 지역적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 등을 포함하며, 유형으로는 농업이민, 망명이민, 노동이민의 성격이 강하다.

농업이민은 1860년에 시작된 러시아로의 이주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후 농사를 위한 한인의 이주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특히 1869년 후반기에는 6,500명의 한인이 연해주로 이주하였으며, 그후 연해주는 러시아 한인 사회의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다. 당시 한인의 이주가 많았던 것은 한반도에 큰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며, 러시아가 한인의 이주를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으로의 한인 이주도 농업이민에서 시작되었다. 1875년 봉금령이 해제되자 한인들은 해란강을 중심으로 한 용정, 훈춘, 연길 등을 개척하며 벼농사를 지었다. 이후 1907년에는 연길 지방에만 5만호 이상의 한인이 거주하였다(이광규, 1996)<sup>2)</sup>. 이들은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과 같이 역경을 헤치고 중국인의 심한 착취를 견디면서 한인사회의 기반을 닦았다.

망명이민은 일제의 탄압을 피하고 조국 광복을 위하여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말한다. 1905년 을사조약 이후 의병선봉자들은 러시아로 대거 이주하였

2) 봉금령은 압록강에서 두만강을 연결하는 선에서 북으로 천 리를 청나라 시조의 발상지라 하여 한국인은 물론 중국인의 거주도 금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동으로부터 밀려오는 러시아의 세력에 못이긴 중국은 1875년 이를 해제하여 오히려 중국 내륙으로부터의 중국 농민의 이주와 한인의 이주를 장려했다.

으며, 이범윤, 엄인섭, 안중근, 유인석, 홍범도 등은 좋은 예이다. 당시 러시아의 한인 사회는 조국의 광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중국으로의 망명이민은 일제 식민지시기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혹자는 압제의 사슬을 피해, 더러는 생계의 수단을 찾아 이주하였다. 중국으로의 망명이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러시아에서와는 달리 민족교육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전서숙, 창동학교, 광성학교, 봉명학교 등 많은 학교들이 북간도에 설립되었으며, 서간도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 역시 이 시기에 세워졌다. 이후 중국 상해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등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독립군과 광복군의 활동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망명이민의 예는 중국 등 제 3국을 통하여 망명형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온 학생의 경우도 해당되는 데, 1910년에서 1918년 사이에 도미한 망명유학생은 541명에 이르렀다(이광규, 1996). 이들 중 홍사단을 조직한 안창호, 스티븐슨을 암살한 전명운, 장인환, 청년군관학교 창설자인 박용만, 그리고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 서재필 등은 대표적인 망명 독립운동가들이다.

노동이민은 1902년 하와이 소재 설탕재배자협회의 비숍(Charles R. Bishop)이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한국 정부와 이민 계약을 체결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계약에 따라 1902년 12월에 97명의 이주자를 하와이로 송출하였다. 이후 하와이 설탕농장으로의 이민은 몇 차례 계속되다가 1905년 92명의 이주를 끝으로 중단되었는데, 1902-1905년 기간 중의 총 하와이 이주민의 수는 7,266명에 달하였다(경제기획원, 1987).

1904년에는 일본인들이 서울에 대륙이민회사를 설립하고 하와이와 멕시코로 한국인 노무자를 송출하는 활동을 벌여 당시 1,033명의 한국인 노무자가 멕시코로 이주하였다(홍사원 외, 1977).

1919년 3·1운동 이후 일본으로 건너간 한인들의 이주 역시 노동이민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들은 일본에서 1년 내지 2년 동안 잠시 머물면서 돈을 벌어서 귀국하겠다는 임시체류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대부분 대도시에서 단순노동에 종사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에는 일자리가 많았고 임금도 한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일본으로의 이주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게다가 한번 일본에서 노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귀국한 후에도 다시 일본을 찾는 경우가 많았으며 체류하는 기간도 갈수록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주자의 대부분은 한국에서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하여도 단순노동, 육체노동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노동이민이 이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이주였다면, 태평양전쟁 기간 동안 군수산업에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일본에 징발되어 온 한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 2) 신이민

해방 이후 해외 이주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62년 해외이주민 법이 제정된 이후 이민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시기별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1960년대의 이주는 초청, 국제결혼, 입양 등 특수이민을 제외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아이 등 남미 지역으로의 농업이민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미국이 새 이민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유럽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이민의 수용대상을 바꾸게 됨에 따라 미국으로의 이민이 급증하게 되었다.

1970년대에 들면서 남미의 현지이민들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되어 연고초청에 의한 이민수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남미 국가들의 농업이민 규제조치들로 인해 이민자수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미국으로의 이주는 꾸준히 증가하여 1971년~1980년 사이에 한인 이주자 수는 27만 2000명에 달했다(한국일보편, 1990).

1980년대에 들어서자 우리 나라의 해외이주는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즉, 종전까지는 고용, 국제수지 등의 측면에서 이민이 갖는 효과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었으나, 80년대에는 장기적인 국력 신장 및 대외적인 협력기반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해외이주정책이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주 형태도 종래의 농업이민 중심에서 어업이주, 투자이주 등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특히 신이민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미국으로의 이주는 그 이전에 있었던 일본 또는 중국으로의 이주와 달리 가족이민, 엘리트이민의 성격이 강했다. 여기서 가족이민이란 가족이 일시에 이민 가는 것을 뜻하며, 엘리트이민이란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이미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 말하자면 한국에서 중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민간 것을 말한다. 이민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1981~1986년 사이에만 202,000명에 이르렀다.

〈표2〉 최근의 해외 이주 유형

이주 유형	이주자 수(점유비율: %)	전년대비 증감(%)
연고 초청	2,427(49.5)	13.6
취업 이주	1,250(25.5)	31.4
사업 이주	762(15.6)	-1
국제 결혼	459(9.4)	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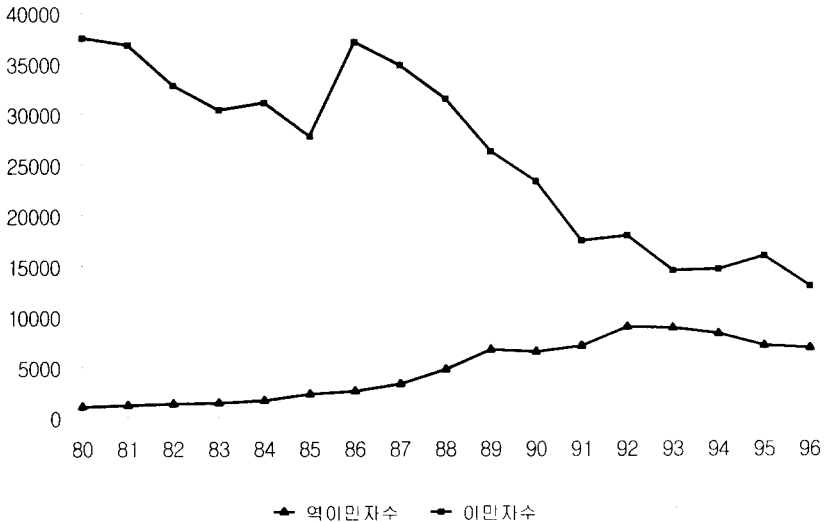
자료: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명사국, 1998: 〈시사 저널〉, 98.6.4 에서 재인용

또한 미국으로의 이주는 시기별로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1970년대에는 낮은 백인의 땅에 가서 이민의 첫 씨앗을 뿌린 10년의 세월이었고, 1980년대에는 성장의 시기라면, 1990년대에는 결실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사실상 3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오늘 미국내 한인의 위치는 보다 튼튼해졌다. 예컨대, 연방 및 주정부, 시정부에 중용 되는 한인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 분야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던 한인의 해외이주는 1986년을 정점(37,097명)으로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감소추세가 급격하여 1996년에는 12,949명으로 줄어들어 1970년 이후 26년만에 최저를 기록하였다. 해외로의 이주 감소에는 한 때 연간 35,000명씩 이주했던 미국에 근래 불과 7,000-8,000명만 이주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국가에도 70년대는 독일 파견 광산 근로자와 간호사들에 힘입어 2,000-3,000명씩 이민을 갔지만, 96년부터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남미, 호주, 뉴질랜드 지역으로의 이주도 극소수에 이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주 감소 추세는 이주 해당국들의 이민억제정책으로 문호가 많이 좁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으로 해외 이주에 대한 수요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점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민 감소 추세와 함께 해외 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도 크게 주목할 만 하다. 역이민 인구는 1980년 한해 1,049명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나 1996년에는 그 6.5배인 6,824명이 되돌아왔다. 특히 LA 흑인 폭동이 일어난 직후인 1992-93년 사이에는 1년간 8,700-8,800여명이 돌아와 역이민이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97년부터 복지법과 이민법을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교포들의 'U턴'을 재촉하고 있다.

〈그림1〉 한인의 해외 이주와 역이민 추세



그러나 최근 들어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 사이에서 해외이주에 대한 매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명퇴 바람과 과중한 사교육비, 교통혼잡과 환경오염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을 피해 한국을 떠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들은 고학력 인텔리층으로서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직장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증가와 장래에 대한 불안정, 과중한 사교육비와 환경오염, 그리고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 때문에 해외이주를 모색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IMF 탈출 이민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경제대란 속에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해외이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재외국민이주과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IMF 관리체제 이후 이민자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sup>3)</sup>, 그

3) 예를 들어 1997년 12월 842명의 해외 이주자는 98년 1월 958명, 2월 1,146명, 3월 1,121명, 4월 1,371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민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황의 장기화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이들에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운데서도 취업이민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주로 미국과 캐나다이며 최근 들어 호주 지역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다.

### 3. 해외 한인의 지역별 특성

#### 1) 이주시기

해외 한인들이 낯선 이국으로 이주를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이다. 이번 조사결과도 관련문헌에 나타난 국가별 이주시기의 특징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으로의 이주는 일제지배를 피하던 1910년 한일합방 이전(34.5%)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가능하게 된 1945년 이후(40.1%)가 대부분이다. 러시아 이주도 중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식민지 시기(40.2%) 이주자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이주민의 어려운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국이주자의 척박한 삶을 목격하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 수천 킬로의 거리를 이동한 결과이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이 식민지 시기(74.4%)에 이주가 집중되었는데, 이는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노동력 착취를 위한 강제이주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미국은 소위 '신이민'으로 불리는 이주 형태가 지배적이며, 해방 이후(90.2%)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당시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던 미국으로 건너갔고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주자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1910년 이전	34.5	0	0	19.7
일제 치하	8.8	74.4	2.0	40.2
1945년 이후	40.1	20.5	90.0	4.6
모름	16.6	5.1	8.0	35.6

위의 표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중앙아시아의 응답자 중 35.6%가 부모의 이주시기를 모른다고 응답한 점이다. 이는 중앙아시아 한인들간에 한민족 정체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주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중국의 경우도 16.6%로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한민족의 21세기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중국내 한인 이주는 1945년 이후에도 상당수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내 한인, 즉 중국조선족은 1945년 이후 부모가 이주해 왔다는 응답자가 40.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주한 사람들도 상당부분 포함될 것이지만,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한국이 1945년 이후 미국으로의 이주가 많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우는 중국으로 이주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한 이들이 스스로를 통일의 민족적 가교라고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앞의 이주시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초 이주자는 중국·중앙아시아의 경우 각각 70%, 53%로 조부모 이전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은 식민지시기라는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충분히 알 수 있듯이 대부분 부모·조부모세대(87.2%)에 이주하였다. 미국은 본인과 부모세대가 96.9%로 압도적으로 높아 아직은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결국 21세기 한인사회를 주도할 세대는 이민 2-3세대이며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의 경우 21세기를 이끌어갈 재외 한인사회의 추동세력은 이미 이민 3세대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적 교류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내 친척의 유무 역시 이주 시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한국에 친인척이 가장 많은 한인사회는 일본(96.1%)이며, 미국(87.1%), 중국(59.3%) 그리고 중앙아시아(18.7%)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설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일본이나 중국은 1945년 이후 대부분 이주를 했지만, 중국, 중앙아시아는 1945년 이전에 이주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친인척을 찾기 힘들거나, 오랜 기간동안 연락이 두절되면서 서로 친인척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므로 친인척부문에 적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가 중앙아시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주시기가 다소 늦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다는 조건과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교류가 확대되어 서로 친인척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국제적 조건이 형성되면서 급속하게 늘어나게 된 것임을 추측

〈표4〉 한국내 친척 유무 (단위: %)

	중국	일본	미국	중양아시아
있다	59.3	96.1	87.1	18.7
없다	31.8	2.6	10.8	28.8
모름	8.9	1.3	2.1	52.5

할 수 있다.

이주당시 조건이 친인척 유무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컨대 중양아시아 한인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주하고, 이주시기가 1910년 이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친인척을 찾는 데는 어려운 조건이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교류는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중양아시아와는 아직 교류가 적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제력의 차이가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일본과 미군한인의 한국방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이 항목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친인척의 유무는 공식적 교류가 아닌, 비공식적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간접적인 원인이라 하겠다. 중국 한인의 경우도 앞으로 교류가 더욱 확대되면 비공식적 인적 교류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 2) 생활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4개국 모두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도 가장 낮은 일본(6.4%)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국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가별로 생활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한 생활을 통해 여타의 소수민족에 비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응답을 합하면 중국이 82%이고 일본이 75%정도, 미국이 67%정도이며 중양아시아가 64%대를 유지한다. 가정생활, 여가생활, 직업, 주거문제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표5〉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매우 만족	19.4	6.4	19.7	19.6
대체로 만족	62.9	66.9	47.3	14.3
대체로 불만	11.9	20.1	25.6	17.8
매우 불만	2.9	6.4	7.1	10.6
모름	2.9	0.1	0.2	7.7

이에 반해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불만현상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지역의 한인들에게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대체로 불만'이라고 응답한 경우를 살펴보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보다 일본(20.1%)이나 미국(25.6%)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이 이러한 응답을 보인 것은 절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일본인과의 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 미국의 경우는 인종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아시아의 한인들 역시 생활에 대한 불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은 급변하는 대내외적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족정체성이 크게 위협받는 한인들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는 달리 중국의 한인들이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은 일찍부터 조선족 사회라는 민족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왔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의해서 중국내 소수민족으로서 자치구를 형성해서 정체성을 유지해왔다는 점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표6〉은 현재 각 지역에서 느끼고 있거나 경험한 고민이나 불만의 종류에 관한 응답으로, 앞의 만족도와는 달리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부정적 응답을 가장 많이 한 지역은 중국과 중앙아시아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 고민의 각 항목에 대한 수치가 20%가 채 안 된다. 일본은 이보다 약간 수치가 높는데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고민이나 불만이 많다는 것은 생활수준이 기대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이 생활수준이 아직 낮은 것을 반영하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6〉 고민이나 불만 사항(중복 응답) (단위: %)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향수	19.2	11.5	19.8	20.4
가치관 갈등	22.4	33.3	6.4	35.4
언어소통	10.7	14.1	19.8	58.5
문화부적응	17.9	3.8	10.5	11.9
경제적 곤란	46.1	23.1	11.3	71.7
민족차별	19.2	35.9	13.3	21.2
동포간 갈등	21.1	32.1	12.9	14.8
불만 없다	25.3	30.8	5.6	36.2

항목별로 우선 고향에 대한 향수는 전반적으로 그리 큰 고민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현지에 대한 적응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또한 이민 1.5-2세대 중심의 설문이기 때문에, 이들은 고향이라는 독특한 느낌이나 향수를 느낄 만큼의 고국 경험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이나 중앙아시아에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그래도 20%대로 나타나는 것은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상상하는 데서 오는 동경이나 그리움 같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가치관에 대한 갈등도 그리 심각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중앙아시아의 경우 35.4%, 일본 33.3%, 중국 22.4%, 미국 6.4%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리 심각하다고 진단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에 관한 갈등이 고민이나 불만으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 곳은 미국인데, 이는 이민 1.5-2세대가 미국생활에 상당히 잘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 한인은 1945년 이후 본국과 가장 많은 교류를 해 왔고, 본국 내에도 미국식 문화가 많기 때문에 서구식 가치관과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언어의 소통문제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한인들의 이주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의 경우는 한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하기 때문에 연변지역 같은 곳에서는 중국어를 몰라도 생활에 전혀 불편이 없다. 미국내 한인의 경우 미국적 사고, 서구적 사고로 영어를 구사하는 것이 역시 그리 쉬운 문

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아시아의 한인이 언어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구소련이 해체되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각 공화국들이 독립후 자민족 중심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소수민족인 한인이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과 달리 문화는 보다 탄력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적응능력은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경우는 문화에 대해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고민이나 불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17.9%이고, 중앙아시아는 11.9%, 미국은 10.5%, 일본은 3.8%이다. 일본내 한인은 다른 지역보다 문화적 적응능력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곤란이 고민이나 불만으로 나타나는 경향은 중앙아시아가 매우 심각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곤란함이 고민이나 불만으로 표출되는 비중은 중앙아시아가 71.7%로 매우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46.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일본으로 23.1%이고, 미국은 11.3%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시아의 한인이 경제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화 과정에서 비롯된 높은 인플레이션과 물가상승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급격한 시장개방을 맞이하고 있는 중국의 한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서도 잘 나타난다.

동포간의 갈등이나 불만으로 표출된 곳은 일본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 그동안 남북한간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으로 동포들간에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극히 적었으며, 서로 모르는 관계로 만났을 때, 상대의 이데올로기적인 성향을 일단 살피거나 의심해야 하는 역사적 비극의 현상이기도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몇 년 뒤에 다시 조사를 실시한다면 상당정도 수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족차별에 대해 제일 한인들이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도 크게 주목할 만 하다. 이는 해외 한인이 어디에 거주하던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반해 한인이 무시당하는 유일한 곳이 일본이라는 지적과 비슷한 맥락이다.

〈표7〉 경제적 수준차이가 개인의 능력차이에서 비롯되는지 여부 (단위: %)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매우 동의	30.4	3.8	21.0	24.1
대체로 동의	44.7	60.3	65.0	43.0
대체로 반대	16.8	21.8	8.0	8.2
매우 반대	6.8	12.8	5.0	7.4
모름	1.3	1.3	1.0	17.3

### 3) 생활가치관

〈표7〉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차이가 구조적인 모순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 능력차이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응답이다.

우선, 개인적인 능력차이가 경제적 수준차이를 가져온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 지역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중국에서 30.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중앙아시아 24.1%, 미국 21.0%이며, 일본은 3.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미국이나 중앙아시아는 평균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이 이들 지역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에서는 개혁과 개방이후 한국과의 교류 등을 통해 조선족사회에 많은 신화적인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좁은 한인사회 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활약은 소위 무용담과 같은 형식으로 전파될 것이며, 이는 곧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인 능력이 경제적인 수준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자유주의 시장경제원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일본에서 개인의 능력 차이가 경제적 수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견해에 대해 가장 낮은 수준의 응답을 보였다. 일본은 ‘반대한다’는 견해가 34.6%로 중국 23.6%, 중앙아시아 15.6%, 미국 13.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도 불과 3.8%로 다른 지역과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속적으로 느껴온 재일 동포들의 삶을 그래도 반영해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민족차별정책이 심하게 나타나는 일본의 경우 일본인이 아닌 이상 개

〈표8〉 인생의 목표

(단위: %)

	중국	일본	미국	중양아시아
경제적 부	12.4	30.8	10.3	19.4
명예	7.8	1.3	5.6	25.8
하고 싶은 일	58.5	44.9	69.8	34.1
사회적 기여	19.6	23.0	14.1	10.5
모름	1.6	0	0.2	10.2

인적인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성공의 길로 들어가기 힘들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몇몇 재일 동포들이 경제영역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개인의 능력만을 갖고 일본사회에서 성공의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인생의 목표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지침이다. 또한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는 그 자신이 처해있는 상태를 분석하는 보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우선 일본내 한인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침 속에서 살아왔거나 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 부를 인생의 목표로 설정한 비율을 살펴보면, 일본내 한인이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중양아시아로 19.4%이고, 중국 12.4%, 미국 1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경제적 부를 강하게 지적하는 것은 경제적 부의 가치를 중시하는 일본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다소 추상적이라 할 수 있는 명예를 인생목표로 설정하는 사람은 중양아시아 25.8%를 제외하고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명예라는 것은 다른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보아 명예가 인생의 목표로 설정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전반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하고 싶은 일에서 찾고자 하는 각국의 응답이 높은 것은 회한과 고통의 이주 역사를 지닌 한인들의 열망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제 는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반영된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보람을 느끼면서 원하는 일을 중시하는 비율이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것이며, 현실적인 판단이 드러나는 응답태도라고 볼 수 있다.



〈표9〉 현재 주로 사용하는 언어 (단위 : %)

	중국	일본	미국	중양아시아
한글	81.2	10.3	94.2	15.4
현지어	17.2	89.7	5.8	56.1
기타 언어	1.6	0	0	28.6

#### 4) 언어와 전통생활양식

해외 한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거주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94.2%의 응답자가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일본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89.7%는 현지어인 일본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해외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주시기나 이민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94.2%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1945년 이후 이주한 경우가 90%나 되었고, 본인이나 부모대에 이주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89.7%로 한글을 사용한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재일 한인들의 경우 일제 치하에 이주한 경우가 75% 정도이고, 부모나 조부모 대에 이주한 경우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하여 응답자의 대부분이 이민 2세대이거나 3세대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는 재일 외국인 특히 재일 한인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적 대우에서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유추도 가능하다. 반면에 중국 한인의 경우 이민 2,3세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지역에 한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기 때문에 한글 사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양아시아의 경우 한글 사용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것은 중양아시아 한인들이 겪은 역사적 경험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사실상 강제이주 이후 중양아시아 한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살아 남아서 대를 이어 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러시아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소련방에 속해 있던 다

〈표10〉 전통적인 명절 준수 여부

(단위 : %)

	중국	일본	미국	중아시아
지낸다	84.5	46.2	16.8	65.1
지내지 않는다	6.2	28.2	29.7	7.2
가끔	9.1	24.4	53.4	26.4
모름	0.3	1.2	0	1.3

른 소수민족들도 거의 같은 처지였으나 중아시아의 한인 같은 강제이주민에게는 속히 동화해야만 생활을 영위해 가는 데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다. 그 때문에 당시 중아시아로 이주된 한인들과 그 자녀들은 '더 이상 쓸모 없는 한국어'를 배우기보다는 러시아어를 더 잘 배우기 위해 노력했는지 모른다. 해외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 중 중아시아에 살고 있는 한인들만큼 철저하게 빨리 동화된 교포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다.

한글구사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해서도 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즉, 미국과 중국의 한인들은 한글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은 반면, 일본과 중아시아에서는 어렵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경우 한국어 교육이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며, 한인사회도 나름대로 잘 형성되어 한국어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아시아에서는 그러한 환경조성이 아직 미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족명절에 대한 태도도 지역별로 확연히 구분된다. 중국(84.5%), 일본(46.2%), 러시아(65.1%) 등에서는 고국명절을 지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지만 미국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민의 역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미국 한인들이 고국의 명절을 쇠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사실은 좀 이례적이다. 물론 이는 미국사회의 가치관 및 그 사회 문화적 특성, 즉 명절과 같은 전통적인 예법보다는 실제 생활의 합리성과 실용성에 더 초점을 두는 생활방식에 적응한 탓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민의 역사가 더 오랜 나라에 거주하는 응답자들이 고국의 전통적인 명절을 지내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 한인들의 경우 84.5%의 응답자가 명절을 쇠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나라 한인들에 비해 우리 나라 전통의 명절을 더 많이 지내

〈표11〉 현지적응도

(단위: %)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매우 잘 적응	50.9	25.6	2.9	25.7
어느 정도 적응	42.1	60.3	62.3	64.6
잘 적응하지 못함	4.2	15.4	32.7	5.6
전혀 적응하지 못함	1.3	1.3	2.0	0
모름	1.3	2.6	0	4.2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중국적 문화의 특성이 우리 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으며 이주민들끼리 가까운 곳에 거주함으로써 고유의 명절을 지내는 전통을 지켜온 때문으로 생각된다.

물론, 외국에 살면서 고국의 명절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이주국의 사회적 특성과 그 나라 고유의 명절이나 기념일도 있기 때문에 이민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혹은 경제적 여건이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고국의 명절을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외 한국인들 특히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한인들이 고국의 명절을 지내는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만하다.

### 5) 현지적응력

그렇다면 해외 한인은 현지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가. 우선 미국은 하와이 이주자로부터 시작된 이주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래된 한인거주지역이자 한국과의 경제적, 문화적 차이로 인해 적응하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그 결과 문화적 이질감을 많이 느껴서인지 '매우 잘 적응'이라는 응답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아주 낮은 2.9%로 나타나고 있어 타문화권으로의 이행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 매우 잘 적응이라는 응답이 50.9%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평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중에서 조선족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실제적으로도 높은 생활수준과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다. 일본과 중앙아시아의 한인 역시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2〉 타민족으로부터의 신뢰도

(단위 : %)

	중국	일본	미국	중양아시아
매우 신뢰	26.9	3.8	6.5	20.2
어느 정도 신뢰	55.1	53.8	47.2	66.8
거의 신뢰하지 않음	14.6	29.5	20.2	8.2
전혀 신뢰하지 않음	2.6	2.6	22.2	1.1
모름	0.6	14.1	3.9	3.7

해외 한인들이 이주국가의 다른 민족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든 외부의 이주자에 대한 경계와 차별은 있게 마련이다. 이주 후 아웃사이더들은 적응을 위한 자구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이는 기존의 타민족들과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적응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었을 때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전체적인 평가는 중양아시아 86.8%, 중국 82.1%, 일본 57.6%, 미국 53.7% 등으로 나타나 긍정적이고 볼 수 있으나 일본과 미국의 경우 '매우 신뢰'라는 응답이 3.8%와 6.5%로 나타나 이 두 지역에서의 평가의 질을 제고하게 만든다.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재일 교포의 경우 자주 언론에서 보도되듯이 재일 교포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재일 교포들이 민족차별을 피해 빠짱코와 불고기집을 운영하면서 얻은 부의 축적도 일본인들에게 밋상으로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우에도 백인중심의 유색인종 차별과 함께 LA 흑인폭동에서 대부분의 한인가계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과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평가가 별로 긍정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인들이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의 측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따라서 이 두 지역의 경우 특히 여타 민족과의 공존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평가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던 중국과 중양아시아의 한인들은 이 질문에서도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성실한 자세와 단결력이 긍정적 이미지를 낳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 정부와 사회단체가 해외 한인들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현지 차별철폐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가장 높고 미국에서는 교육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다. 이에 반해 중앙아시아에서는 문화교류 및 방문프로그램 실시가 가장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4. 맺음말

한인의 해외이주는 굶주림으로부터의 탈출, 망명, 강제노역, 징용 등의 이유에서 비롯되었다. 피나리봇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진 채 연해주와 만주 벌판으로 떠나갔고,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갔고,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등 우리의 해외이주사는 설움이 사무치고 망국의 눈물로 젖어 있다. 이에 반해 1960년대 이후 한인의 해외이주는 ‘보다 나은 삶’, ‘보다 확실한 미래’를 찾아 떠나는 이민의 성격을 띠면서 세계 곳곳에서 활력과 가능성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한인은 중국에 200만, 미국에 130만, 일본에 80만, 구소련에 45만 등 약 450만 명이 소위 세계 4대 강국에 살고 있다. 고난의 가시밭 길을 해낸 자국들이 곳곳에 스며있지만 이들은 엄연히 한국인의 뿌리를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다. 동시에 해외 한인들은 해당 국가로의 이주과정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구소련 지역인 중앙아시아의 한인들이 경제문제와 언어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데 반해 제일 한인들은 민족차별분리와 민족갈등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은 좋은 예이다.

해외 한인의 의식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이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하다. 다양한 이주 배경과 이주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해외 한인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조명하고, 또한 이러한 시각 하에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해외 한인의 중요성에 비하여 그간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다. 이제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들에 대해 큰 관심을 갖는 것은 530만 해외동포의 역량을 집결해 본국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세계 곳곳에 자국민을 진출시키고 있는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적 추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 한인들에 대한 폭넓은 기초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정확한 현상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해외한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심도 있는 정보 및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해외 한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경제기획원(1987), 《해외이주편람》.
- 고승제(1973), 《한국이민사연구》, 장문각.
- 이구홍(1997), “해외동포, 그들은 누구인가?” 《신문로 포럼》, 제47호.
- 이광규(1994), 《한민족의 세계사적 소명》,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1996), “세계의 한민족 : 총관”, 《세계한민족총서 1》, 통일원.
- 이종훈(1997), “미래지향적인 재외동포정책을 향하여”, 《신문로 포럼》, 제47호.
- 한국일보편(1990), 《지구촌 한민족 : 유이민의 어제와 오늘》, 한국일보사.
- 한준상(1986), 《한인교포사회와 교육문제》, 삼성출판사.
- 홍사원·김사현, “한국해외이민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조사보고서》, 제79-07권

abstract

---

##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Overseas Koreans

Sung-Ho Chung

There are about 5,300,000 overseas Koreans in the world. This is about 11.8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y reside in more than one hundred nations. This exodus occurred due to forced emigration, escape from oppressive regimes, and economic opportunity. Most of them are living in the four regions, that is, China, Japan, America, and Central Asi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attern of Korean migration to overseas and to compare the life style of overseas Koreans. The data are taken from a sample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China, Japan, America, and Central Asia. A total of 300 respondents were interviewed in each country.

The result show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the lives of overseas Koreans. For example, the Koreans in Central Asia may have suffered the greatest hardship. The similar case was found in the Koreans in China. By contrast, the issue of ethnic conflict becomes the most serious problem in the Koreans in Japan. This study also shows many aspects of common Korean heritage, that is, hard work, diligence, and high level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study indicates that overseas Koreans are trying to retain Korean traditional values and relationships in their families.